

보도시점 2026. 10. 1.(목) 배포시점 배포 2026. 10. 1.(목) 10:00

“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인공지능서비스 역기능 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위해 10~11월 두 달 동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방미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 채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확인템 장착이 국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 판별 게임과 범죄 악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활동들이 주요 내용이며, 국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이 높은 새천년세대(MZ) 및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상품 및 쿠폰 등도 지급한다.

10월에는 온라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정보와 조작된 정보를 나란히 제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진위를 가려보는 ‘진짜 대가짜’ 판별 퀴즈를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숏폼)으로 제작해 순차 공개한다.

11월에는 자신만의 정보 확인 방법을 짧은 영상(숏폼)이나 카드뉴스로 소개하는 ‘확인템 장착 챌린지’도 진행한다.

별도로 운영되는 확인템 인증 사이트에서 사진을 올리면 캠페인 상징 배지가 자동으로 합성되며, 완성된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다양한 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를 접했을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거짓 정보 판별 점검표(체크리스트)’,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을 조기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참여 플랫폼’(<https://ai.wiseuser.go.kr/sermain.do>) 이용 방법도 함께 담아 국민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활동(5월~)’, ‘인공지능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6월~)’ 등 인공지능서비스 역기능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반상권 대변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고도화되며 국민 생활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이 2023년 12.3%에서 2025년 38.9%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붙임. 캠페인 슬로건 디자인

담당 부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 장	이은호 (02-2110-1340)
		담당자	사무관	김성범 (02-2110-1335)



Ai시대,
확인템
장착이 국룰!